

충청남도 시·군 명칭의 유래와 경역(10)

- 부여군 -

임선빈(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전문위원)

충청남도에는 15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이들 시·군의 경역(境域)은 대체로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인위적인 통합으로 그 윤곽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공주시와 같이 조선시대의 공주목 경역에서 축소된 지역도 있고, 아산시나 부여군과 같이 조선시대까지는 3~4개의 고을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된 고을도 있습니다. 고을의 명칭과 경역도 백제·통일신라·고려·조선에서 각각 달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시·군 명칭은 언제부터 등장했으며, 오늘날의 시·군 경역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을까?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의 명칭 유래와 경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고을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충청남도 시·군 공직자나 지역 주민들도 이웃 시·군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부여군(扶餘郡)은 1914년에 부여군과 홍산군·임천군의 전 지역, 석성군의 일부(당시의 현내면·북면·증산면·비당면, 현재의 부여군 석성면 지역), 공주군의 일부(반탄면 서원·정곡리)를 통합하여 오늘날의 경역을 이루게 되었다.

부여에는 삼한시대에 마한의 초산국(楚山國)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백제시대의 소부리(所夫里)·대산홀(大山忽:지금의 鴻山)·가림홀(加林忽:지금의 林川)·진악산(珍惡山:지금의 石城)이 현재의 부여군에 해당된다. 특히 부여읍 일대는 소부리 혹은 사비(泗沘)라고 하였다. 백제가 멸망한 뒤에는 신라의 문무왕이 이곳에 총관을 두었고, 경덕왕이 부여군으로 고쳤다. 고려에서도 부여군이라고 부르면서 현종 9년(1018)에 공주 임내에 붙이었고, 명종 2년(1172)에 비로소 감무를 두었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채택하여 오다가 태종 13년(1413)에 감무를 혁파하고 현감을 수령으로 파견하는 제도에 의해 부여현에도 종6품의 현감이 파견되기 시작했다. 부여현은 1895년(고종 32)에 팔도제가 폐지되고 전국을 23부로 구획하면서 공주부 관하의 부여군이 되었고, 1896년 13도제로 변경하였을 때 충청남도의 부여군(4등군)이 되었다. 1914년 부·군 통합령의 실시로 홍산·임천 전지역과

석성군·공주군의 일부 지역을 편입하여 16개면을 관할하였다.

홍산은 백제의 대산현(大山縣)이었는데, 통일신라 시대인 경덕왕 16년(757) 한산현(翰山縣)으로 고쳐 가림군(嘉林郡)의 영현으로 하였고, 고려 초기인 태조 23년(940)에 홍산현으로 고쳤다. 현종 9년(1018)의 지방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때에는 가림현 임내에 붙어있다가, 명종 5년(1175)에는 한산감무가 홍산현의 통치도 겸하게 하였다. 조선 초기인 태종 13년(1413)에 감무를 현감으로 고치면서 종6품의 홍산현감이 부임하였다. 홍산현은 1895년(고종 32)의 23부제가 실시되면서 홍주부 홍산군으로 바뀌었으며, 1896년의 13도제에서 충청남도 홍산군(3등군)으로 편제되었다가, 1914년 부여군에 병합되었다.

임천은 백제의 가림군(加林郡)으로, 통일신라 때인 경덕왕 16년(757)에 ‘加’를 ‘嘉(아름다울 가)’로 바꾸어 가림군(嘉林郡)이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성종 14년(995)에 임주자사(林州刺史)를 두었다가, 현종 9년(1018)에 다시 가림현(嘉林縣)으로 고치고 현령을 두었다. 그리고 충숙왕 2년(1315)에는 원나라 평장사(平章事) 아패해(阿孝海)의 처 조씨(趙氏)의 고향이라 하여 지임주사(知林州事)로 승격하였다가 1341년에 다시 복구시켰다. 조선초기인 태조 3년(1394)에는 명나라 조정으로 들어간 환자(宦者) 진한룡(陳漢龍)이 명의 사신이 되어 돌아와서 생장(生長)한 땅이라고 청하여 임주부(林州府)로 승격되었다가 태종 1년(1401)에 환원되었으나, 다시 태종 3년(1403)에 명나라에 들어간 환자 주윤단(朱允端)이 환국(還國)하여 생장한 땅이라고 또 청해서 임주부로 되었다가 이듬해에 복구하였고, 태종 13년(1413)에 도호부 이상의 고을에만 고을 명칭에 ‘州’자를 사용하는 제도가 실시되면서 ‘林州’를 ‘林川’으로 고쳐서 임천군(林川郡)이 되었다. 임천군은 1895년의 23부제에서 홍주부 임천군으로 편제되고, 1896년의 13도제에서 충청남도 임천군(3등군)이 되었다가, 1914년에 부여군으로 편입되었다.

석성은 백제의 진악산현(珍惡山縣)으로, 통일신라의 신문왕 6년(686)에 석산현(石山縣)이라 고치고, 경덕왕 16년(757)에 부여군의 영현으로 삼았다. 고려 초기인 태조 23년(940)에 석성현(石城縣)으로 고치고, 현종 9년(1018)에 공주 임내에 붙어있다가, 명종 2년(1172)에 비로소 감무를 두었다. 그러나 뒤에 석성감무를 혁파하고, 공민왕 20년(1371)에 부여감무로 석성현의 업무를 겸임하게 하였다가, 공양왕 2년(1390)에 다시 감무를 두었다. 조선초기에는 태종 14년(1414)에 석성과 이산(尼山)을 합하여 이성(尼城)으로 고쳐 부르다가, 다음 해에 이곳이 고다진(古多津)으로 통하는 요충지라 하여 다시 나누고 현감을 두었다. 석성현은 1895년(고종 32)의

23부제에서 공주부 석성군이 되었고, 1896년의 13도제에서 충청남도 석성군(4등군)으로 편제되었다가, 1914년에 군을 폐하고 그 땅을 나누어 원북면·정지면·삼산면·병촌면·우곶면은 논산군 성동면에, 현내면·북면·증산면·비당면은 부여군 석성면으로 병합하였다.